

동남합성, 이지희 대표이사 선임

EOA를 비롯한 계면활성제 생산기업 동남합성은 이지희 신임 대표이사를 선임했다.

동남합성은 차종학 대표이사가 일신상의 사유로 사임함에 따라 이지희 대표이사를 새롭게 선임했다고 5월31일 공시했다.

한편, 동남합성은 2010년 EOA(Ethylene Oxide Additive) 4만5000톤을 증설함으로써 생산능력을 7만5000톤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내 EOA 시장은 성장률이 3% 안팎에서 정체되고 있지만 관련기업들의 증설과 원료가격 상승 영향으로 어려움이 커지고 있으나 콘크리트 혼화제, 세정제 등 계면활성제용 수요가 수익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화학저널 2010/06/01>